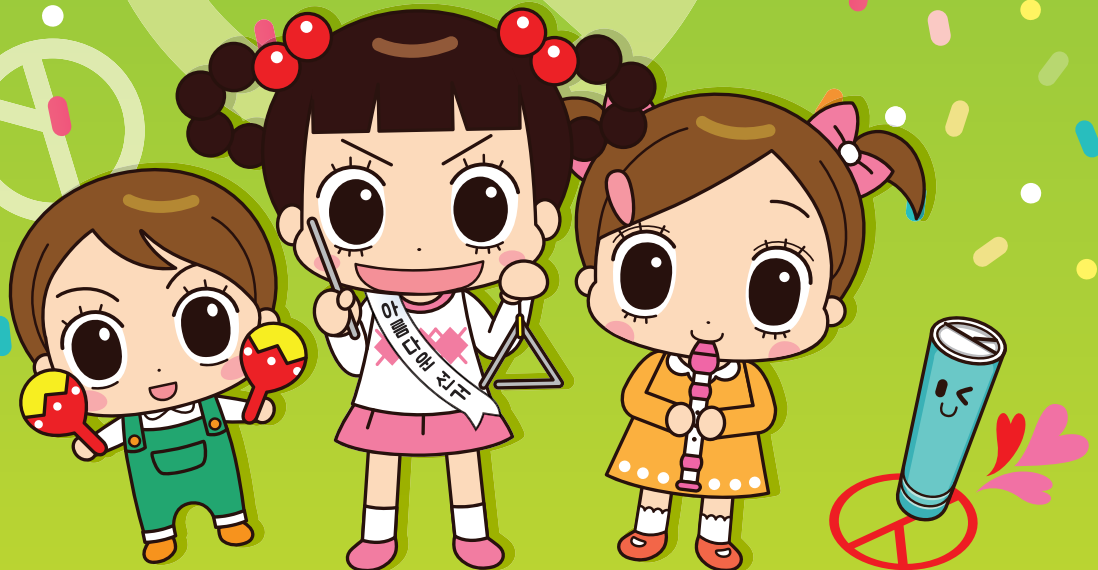




신문으로 배우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선거



신문으로 배우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선거



초등학생용
2018 NIE 패스포트

차례

- 03 ▶▶ 일러두기
- 04 ▶▶ 자기소개
- 05 ▶▶ 신문지면 소개
- 06 ▶▶ 나의 활동 메모












활동 주제

- 08 ▶▶ 알아보자, 6·13 지방선거
- 10 ▶▶ 전교회장 선거와 지방선거는 어떻게 달라요?
- 12 ▶▶ 어린이 후보자의 이색 공약
- 14 ▶▶ 지방선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16 ▶▶ 나만의 선거구호를 만들어 보세요!
- 18 ▶▶ 후보님! 이런 홍보 전략은 어때요?
- 20 ▶▶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
- 22 ▶▶ 내가 교육감이라면
- 24 ▶▶ 우리 동네 후보자와 공약 조사하기
- 26 ▶▶ 선거 소식 전하는 “나는야, 명예기자”
- 28 ▶▶ 가짜 뉴스! 속으면 안 돼요
- 3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 32 ▶▶ 투표소에 가볼까요?
- 34 ▶▶ 선거뉴스 2가지 뽑아볼까요?
- 36 ▶▶ 우리 동네 당선자에게 바랍니다~

- 39 ▶▶ VISA(확인서)

일러두기

패스포트 사용법

-  '2018 풀뿌리 민주주의와 선거 패스포트'는 지방선거를 비롯, 다양한 선거에 대한 기사나 자료를 찾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는 **15개의** 주제로 정리해 묶었습니다.
-  활동 주제는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스포트에 나온 주제를 모두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2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활동은 관심 있는 주제부터 하면 효과적입니다. **패스포트에 실린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주제를 선택**해서 활동해도 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신문은 **2014~2018년 발행된 신문**입니다.
-  보조자료로 어린이신문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제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개별 또는 모둠 모두 가능하지만 개별 활동을 권합니다.
-  활동 내용을 정리할 때 볼펜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필로 쓸 경우 뚜렛이 드러나게 필기해야 합니다.
-  스크랩한 신문 자료가 클 경우, 자료를 접어 패스포트에 붙여도 됩니다.
-  활동 날짜, 참고한 신문과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  **'나의 활동 메모'**(6~7쪽)는 **활동한 날짜**를 씁니다.
-  과제를 모두 마치면 뒤쪽에 있는 '비자(visa)' 페이지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확인'을 받습니다.

자, 이제 신문으로 배우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선거의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 알림

'2018 풀뿌리 민주주의와 선거 패스포트'는 교과별 수행평가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동아리·진로활동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기소개



자신의 사진을 직접 붙이거나
직접 캐릭터로 그려 붙이기

이름 ◆

학교 ◆

학년·반 ◆

연락처 ◆

발급일 ◆

서명 ◆

활동기간 ◆

신문지면 소개

‘폴뿌리 민주주의와 선거’ 패스포트 활동 수행 전에 알아두세요

신문은 다양한 지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면의 명칭은 신문사에 따라 다르지만, 독자가 신문을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기사도 그것이 생활에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지면에 소개될 수도 있지요. 신문을 참고하면 활동 과제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면

여러 분야의
주요기사

정치면

국내외 정치와
관련된 기사

해설면

기사에 관련된
심층 해설

국제면

나라 사이의 관계,
다른 나라의
기사

경제면

경제 활동에
관련 기사

오피니언면

사설, 칼럼,
독자투고

과학면

정보통신, 환경 등
과학기술에 관한
기사

교육면

학교, 교육 정책
등에 관련된
내용

사람들면

유명 인물이나
단체에 관한
소식

지역면

신문이 배포되는
지방의 기사

사회면

사회의 각종 사건
관련 기사

스포츠면

운동경기,
운동선수 등에
관련 기사

문화면

각종 문화, 예술
관련 기사

연예·오락면

연예가 관련
기사

방송면

방송 프로그램 등

취업·창업면

취업과 창업
관련 기사

출판면

새로 나온 책
소개 등

건강면

질병, 병원,
의료 활동 등
관련 기사

여행·레저면

여행, 레저 활동
정보 등

광고

각종 제품과
서비스의
광고



나의 활동 메모

순번	날짜	활동 주제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알아보자, 6·13 지방선거



6월 13일은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분들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만큼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까요.

누구를 뽑는 선거인가요?	
출마 자격은?	
뽑힌 분들의 임기는?	



나라마다 투표권이 생기는 나이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근 들어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과 ‘만 19세 그대로 두자’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투표할 나이와 관련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나의 의견을 적어보세요.

기사 붙이는 곳

나의 의견

활동 날짜 년 월 일 요일

참고 신문 년 월 일 신문(일보) 면

참고사이트



우리 지역에는 어떤 후보자들이 출마했나요?

▶ 나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내가 사는 곳의 주소를 적어보세요.

특별시 / 광역시 / 도

시 / 군 / 구

▶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나요? 선출 대상에 동그라미를 하고 아래 내용을 조사해보세요.

선출 대상	출마자(정당)	하는 일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인 도(특별시)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기초단체장 (구청장, 시장, 군수)		
광역의원 (시·도 의회의원)		
기초의원 (구·시·군 의원)		
교육감		

※ 출마한 후보자(정당)는 6월 1일 이후 동네에 부착된 선거벽보 및 6월 4일 이후 각 가정에 발송된 선거공보 참조



2

전교회장 선거와 지방선거는 어떻게 달라요?



학교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모든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결정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교회장, 부회장을 선출합니다. 국가나 지역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도 모든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는 힘들겠지요?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아 자신들의 의견을 전하고 국가의 일에 참여 할 수 있어요. 전교회장 선거와 지방선거를 비교해볼까요.



전교회장 선거와 지방선거를 잘 나타낸 신문 사진을 스크랩해 보세요. 선거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도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 또는 사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사진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써보세요. (예-얼음사진: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교회장 선거	지방선거
신문 사진 붙이는 곳	신문 사진 붙이는 곳
이유	이유

활동 날짜	년	월	일	요일	
참고 신문	년	월	일	신문(일보)	면
참고사이트					



지난 3월에 실시되었던 전교회장 선거와 6월 지방선거의 과정을 비교하여 적어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 선거 과정 자료 찾는 방법

• 전교회장 선거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방문합니다.
2. 화면 오른쪽 맨위에 '선남선녀:미래유권자'를 클릭합니다.
3. 화면 위쪽 '선거아카데미' 메뉴에서 '학교생활 속 선거'를 클릭해 '학교선거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 지방선거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방문합니다.
2. 화면 위쪽 메뉴에서 '알림'을 클릭합니다.
3. 화면 왼쪽 메뉴에서 '스토리텔링-요모조모'를 클릭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어린이 후보자의 이색 공약

선거는 어른들만의 일일까요? 아래 기사를 보니 부산의 초등 친구들도 선거를 거치며 멋진 일을 해냈어요.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알아볼까요.



어른도 못한 ‘똥학교’ 개명, 아이들이 해냈죠

〈대변초등학교〉

NEWS 신통이의 신문 읽기

학교 이름 때문에 놀림 받는 일이 계속 생긴다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품기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내는 사람이 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 지역의 작은 학교 사례를 통해 학생의 용기와 이를 도운 지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되새겨보자.

- ▶엄마 : 너 가끔 신통이로 불러 속상하다며!
▶신통이 : 맞아요. 내가 아무리 '신문과 소통하기를 줄여서 신통이라고 해도, 친구들이 "그래 봐야 신문은 똥종이. 그래서 넌 신통이야"고 놀려요. "그럼 넌 똥 안 싸고 사냐!"고 쏘아붙이긴 해도 기분은 좀 그래요.
▶엄마 : 하하하... 친구들과 똥 전쟁이네.
▶신통이 : 처음 들을 때는 화가 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니 친구들도 재미가 없는지 몇 번 하다 말더라고요.
▶엄마 : 잘 참았구나. 그런데 학교 이름이 똥을 연상시킨다면 어떨 것 같니? 부산에 있는 대변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변'이라는 학교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한다고 학교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지난 19일자 7면 '똥학교' 놀림 대변초 '용암초'로 변경).
▶신통이 : 왜 학교 이름에 '대변'이 들어 갔을까요?
▶엄마 : 학교가 있는 행정 구역이 기장군 대변리라 그렇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는 똥학교로 불리거나 이상한 학교

“놀림거리 그만... 내가 바꿀 것”
공약 내걸고 당선된 부회장
졸업생·관광객 대상 서명운동
지역연대 학생이 앞장서 이슈



교명 바꾸기에 앞장선 대변초 학생들.

이름 2위에 오르기도 했다네. 또는 여러 학교가 함께 하는 대회나 행사 등에서 학교 이름이 불리면 웃음거리가 돼 창피한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었고.

- ▶신통이 : 바꾸자고 할 만하겠어요. 우리 이름도 바꾸기 어렵듯이 학교 이름도 바꾸기 어려울텐데요.
▶엄마 : 그동안 교명 바꾸자는 말이 있었지만 일부 동문의 반대로 있었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겠지. 그러다 올해 초 이학교 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5학년 학생이 교명을 바꾸겠다 공약을 내걸었고 이에 전교생의 열렬한 지

지를 받아 당선 됐대. 그리고 부회장과 회장이 함께 봄에 열리는 기장멸치축제 때 축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관광객과 졸업생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는구나.

- ▶신통이 : 와, 대단한데요. 그 학교부 회장 공약을 지키려고 학교 밖으로 나와 어른들께 일일이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 냈다니.
▶엄마 : 그렇지. 또 동네 어른들과 선배들에게는 편지도 쓰는 등 아이들이 애쓰니 학부모들도 동참하게 되었고 이어 선생님들과 동창회, 마을 이장들도 나서서 교명 변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거야. 이 후 일이 적극적으로 진행돼 4000여 명에게 서명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교육청에 교명 변경을 신청한 후 부산시 교육청의 심의와 시의회와의 조례 개정까지 거쳤다는구나.

- ▶신통이 : 절차가 복잡하네요. 그럼 '용암초'는 어떻게 지은 이름일까요?
▶엄마 :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교명을 공모도 하고 동창회 총회도 거치면서 이 지역의 옛지명인 용암으로 결정이 났단다. 내년부터는 용암초등학교가 정식 학교 이름이 되겠지. 학생이 먼저 나서서 시작했고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연대하는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해지지 않았을까.
▶신통이 : 내년부터는 놀림당하지 않아서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 이름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학생들은 새학교 이름을 불때 마다 뿌듯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윤영이 한국언론진흥재단 NIE 강사

활동 날짜 년 월 일 요일

참고 신문 년 월 일 신문(일보) 면

참고사이트



위 기사 내용을 4컷 만화로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전교회장이 된다면 우리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혹시 고치고 싶은 일이나 새롭게 만들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아래 표에 정리해보세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친구들이나 선생님, 부모님과 상의해도 됩니다.

새롭게 만들고 싶은 일	
고치고 싶은 일	



지방선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요? 지방정부의 책임자를 뽑는 것이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그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다른지, 지방선거를 계기로 궁금한 점을 같이 알아볼까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달라요?



나도 이제 정치 박사



‘중앙 정부’ 한 나라의 통치 기구 전체 가리켜

‘지방 정부’는 도·시·군 등 일정 지역 행정 업무 처리... 서로 간 협력 필요해



‘중앙 정부’는 나라 전체의 살림을 맡아 하는 정부를 말해요. 넓은 의미로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모두 포함하는 한 나라의 통치 기구 전체를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내각 또는 행정부 및 그에 속하는 행정 기구만을 의미하지요. 지방 정부는 한 지역의 살림을 맡아 하는 정부를 말해요.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등과 같이 일정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행정 업무를 맡아서 처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처럼 지방정부의 책임자도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해요. 이처럼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정치 방식을 ‘지방 자치 제도’라고 해요. 중앙 정부가 있는데도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

민의 요구에 맞게 지역 살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중앙 정부에서는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과 전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라 살림을 하기 때문에 지역 문제에는 소홀할 수 있거든요. 또 지역의 살림살이와 주민들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국민자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광역 자치 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기초 자치 단체인 시·군·구를 들 수 있습니다. 단체마다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장과 의결 기관인 지방의회가 있지요. 지방 자치 단체장은 중앙 정부의 행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지방의회는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해요.

각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정책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 국제 영화제를 치르는 등 지역마다 독자 사업을 추진해요. 하지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서로의 협력이 꼭 필요해요. 그러므로 지방 정부는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내세우지 말아야 하고 중앙 정부는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 할 수 있도록 공정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재미있는 선거와 정치 이야기’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 사업 회의

서울 동작구청 계몽

활동 날짜 년 월 일 요일

참고 신문 년 월 일 신문(일보) 면

참고사이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점에 대해 적어보세요.

중앙정부	기준	지방정부
	정의	
	집행 기관	
	의결 기관	
	성격	



중앙정부가 있는데도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료〉를 읽고 기사 내용과 관련 있게 '지방선거'로 4행시를 지어보세요.

지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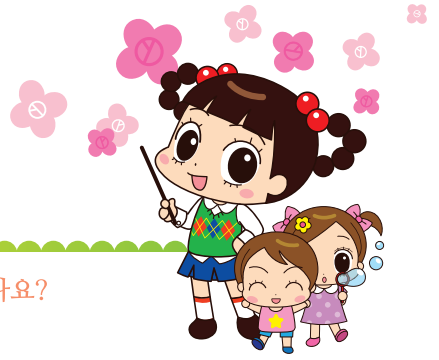
선

거



5

나만의 선거구호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학급회장 선거나 전교회장 선거에 참여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만일 회장에 도전한다면 어떤 구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방선거에 출마한 우리 동네 후보자들의 포스터 중에서 마음에 드는 두 명을 골라 아래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후보자의 이름		
집으로 온 선거 포스터를 붙이거나, 선거 포스터의 특징을 살려 간략히 그려보세요.		
인상적인 구호		
구호에 대한 나의 의견		

※ 6월 1일 이후 동네에 부착된 선거벽보 및 6월 4일 이후 각 가정에 발송된 선거공보(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 : policy.nec.go.kr) 참조



내가 전교회장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과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준을 비교하고 적어보세요.

내 기준	
부모님의 기준	
차이점 혹은 공통점	

활동 날짜 년 월 일 요일

참고 신문 년 월 일 신문(일보) 면

참고사이트



후보들의 구호를 살펴보고 전교회장의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전교회장으로 출마한 여러분의 모습을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포스터로 제작해보세요. 어떤 모습이 전교회장으로 어울리는 모습일까요?

전교회장 후보	기호 _____ 번	이름

후보자의 기호와 구호가 보이도록 크게 쓰세요.
포스터의 특징 :
구호의 특징 :



6

후보님! 이런 홍보 전략은 어때요?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며 다양한 홍보 전략을 쓴답니다. 다양한 홍보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의 홍보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직접 조사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아래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홍보 방법	홍보 내용	좋은 점
직접 연설	후보자의 정책을 직접 유권자들 앞에서 말하기	

활동 날짜 년 월 일 요일

참고 신문 년 월 일 신문(일보) 면

참고사이트



선거 때가 되면, 신문에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을 어떻게 홍보하는지를 다루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홍보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세요.

기사 출처 :	날짜 :	신문명 :
기사 붙이는 곳		



이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후보자 이름	홍보 방법	기대하는 효과



7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



선거는 국가적인 행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기 때문에 실수 없이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스크랩해보세요. 무엇을 하고 있는 사진인가요? 왜 여러분은 이 사진을 골랐나요? 이 사진에 제목을 붙이고 간단한 설명을 써보세요.

사진 붙이는 곳	
제목:	
설명:	

활동 날짜 년 월 일 요일

참고 신문 년 월 일 신문(일보) 면

참고사이트



아래 (표)에 적혀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적어보세요. 나머지 빈칸에는 선거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찾아서 써보세요. 궁금한 부분은 부모님과 상의하거나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세요.

선거 사무원(운동원)	
시민 기자단	
여론 조사 분석가	
개표 사무원(도우미)	
투표 안내 도우미	
공정선거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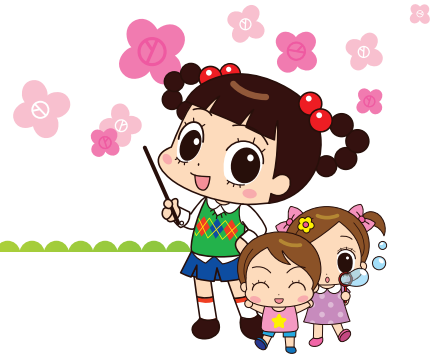


부모님께서 꼭 선거에 참여하시도록 엽서를 만들어볼까요? 지방선거 날짜와 함께 여태까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 선거를 나타낼 수 있는 작은 그림을 그리면 더 예쁜 엽서가 완성되겠지요?





내가 교육감이라면



교육감은 우리 지역 학교와 교육기관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교육과 관련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 교육감에 대해 알아볼까요.



훌륭한 교육감이 되려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
다.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어떤 학교가 되면 좋을지 토의하고 그 결과를 적어보세요.

※ 토의 방법

- ①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서로 다른 색깔의 포스트잇을 각자 3장씩 나누어 가집니다.
- ② 다니는 학교의 환경과 교육이 어땠으면 좋을지 포스트잇에 각각 한 개씩 3가지를 적습니다.
- ③ 각자 적은 내용을 돌아가며 읽고 큰 도화지에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 ④ 비슷한 내용끼리 모아 정리합니다.
- ⑤ 토의를 통해 정리한 내용 중에서 분야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3가지를 고릅니다.

▶ (토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학교 교육 환경에 대해 토의하고 그 결과를 적어보세요.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면 좋겠어요.

의견 1

의견 2

의견 3

활동 날짜 년 월 일 요일

참고 신문 년 월 일 신문(일보) 면

참고사이트



위에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만일 여러분이 교육감이 된다면 초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약 1가지를 만들고, 그 공약을 바탕으로 신문광고를 만들어보세요.

▶ 내가 만든 공약

▶ 내가 만든 신문광고



9

우리 동네 후보자와 공약 조사하기



선거에서 ‘공약’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당선되면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후보자들은 지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합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 투표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겠지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흥미로운 공약이나 관심 있는 공약을 찾아보세요. 아래 선출대상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선택해 공약과 이유를 적어보세요.

선출대상 구분	내가 고른 공약	이유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구·시·군의장)		
교육감		
지역구 시·도 광역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활동 날짜 년 월 일 요일

참고 신문 년 월 일 신문(일보) 면

참고사이트



우리 동네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 가운데 ‘나 또는 가족, 우리 동네’에서 가장 필요한 공약이 무엇인지 각자 적어보세요. 참여 인원은 2명 이상(친구, 가족)

가족 또는 친구	각자 고른 공약	이유



만일 여러분이 후보자라면 ‘우리 동네 또는 내가 희망하는 일’ 1가지를 공약으로 제안해보세요.

제안할 공약	이유



10

선거 소식 전하는 “나는야, 명예기자”



“기호 ○번을 뽑아주시면 ○○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가 뽑혔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유세부터 투표·개표까지 다양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 친구나 가족에게 알릴 뉴스를 찾아봅시다.



아래에 ‘내가 알릴 내용’을 직접 글로 쓰거나, 기사·사진·포스터·그림 등을 붙여보세요.

제목

내용

활동 날짜 년 월 일 요일

참고 신문 년 월 일 신문(일보) 면

참고사이트



위의 '내가 알릴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보세요. 만일 기사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내용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위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기자가 되어 보도할 경우 기사문 형태로 적어보세요.



가짜 뉴스! 속으면 안 돼요

가짜 뉴스는 뉴스 형태로 포장해 거짓 내용을 담아 유포되는 정보입니다. 작게는 몇몇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만, 때로는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커다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가짜 뉴스!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되겠지요.



아래 신문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거짓말 후보 퇴출시킬 장치 갖춰야”

‘가짜 뉴스’, 전문가 분석

공천관리 기구 오락가락하면 경쟁자 제거 전략으로 선회 결국 네거티브 전략 유혹 빠져 유권자도 언론 검증 살펴봐야

전문가들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마구 쏟아지는 가짜 뉴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거짓말로 비방만 일삼는 후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각 정당이 제대로 된 공천 규칙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선도 아닌 당내 경선에서 네거티브 전략이 나오는 것은 공천 물과 깊은 연관이 있다”며 “공천을 관리하는 기구가 지난 선거에서 경선했던 지역을 이번에는 전략공천하는 등 오락가락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불거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후보들이 자신의

선거구가 경선 지역이 될지 전략공천 지역이 될지 모르다 보니 경쟁자를 모두 제거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마타도어·가짜 뉴스 등을 없애고 유권자가 여기에 휘둘리지 않게 하려면 언론과 선관위를 통한 공식적인 정책 홍보 외에 모든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유권자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무책임하고 불확실한 이야기보다는 언론이 검증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게 바로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강형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네거티브, 가짜 뉴스 등은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때 2:3 등이 구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방 선거는 정책이나 인물 경쟁보다는 당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구조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자유한국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대구 경북 정치 환경이다 보니 공천 과정에서 가짜 뉴스 등이 난무한다”는 원인 분석을 내놨다.

이 교수는 아울러 “후보 입장에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며 “가짜 뉴스는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은 얼마 들지 않지만 효과는 크다 보니 선거 때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당하는 쪽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바이럴 마케팅처럼 입에서 입을 타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점 때문에 후보자들이 네거티브 전략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네거티브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상대 정책의 허점을 찾아 이를 지적하는 방식의 긍정적인 네거티브는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비방 등은 후보 스스로 자제하려는 도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 **마타도어**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혼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을 '마타도어'라고 합니다.

● **바이럴 마케팅**

누리꾼들이 이메일이나 SNS등 여러 매체를 통해 스스로 어떤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 <자료>를 읽고 가짜 뉴스를 없애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인가요?

▶ <자료>에 나온 이정태 교수가 주장하는 '마타도어' 뉴스를 없애고 유권자가 휘둘리지 않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가짜 뉴스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백제 무왕이 지은 '서동요'는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만든 '가짜 뉴스'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가짜 뉴스를 찾아보세요.

구분	내용
언제	
주요 내용	
미친 영향	

※ **가짜 뉴스 자료 찾는 방법**

- 1) 포털사이트에서 정당당스토리(중앙선관위 공식블로그)를 검색합니다.
- 2) 공식블로그(<http://blog.nec.go.kr>) 화면 왼쪽 '검색어 입력' 창에 '가짜 뉴스'를 입력해 내용을 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선거 때가 되면 가장 바쁜 곳 중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일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신문 기사도 찾아보며 이곳에서 하는 일들을 알아볼까요.



다음 귀여운 캐릭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캐릭터들입니다. 이 캐릭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보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참참



바루



알리

캐릭터 이름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참참	
바루	
알리	

※ 캐릭터 찾는 방법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방문합니다.
- 2) 화면 위쪽 메뉴에서 '위원회소개'를 클릭합니다.
- 3) 화면 왼쪽 메뉴에서 '위원회상징 및 홍보대사'에 속한 '캐릭터'를 눌러 내용을 확인합니다.

활동 날짜 년 월 일 요일

참고 신문 년 월 일 신문(일보) 면

참고사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까요?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하는 일을 알아보까요? 여러분이 알아낸 내용 중 1~2가지를 적어보세요.

- ▶ 신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기사를 스크랩하고 여러분이 알게 된 내용을 적어보세요.

기사 붙이는 곳	
선관위가 하는 일	
알게 된 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 자료 찾는 방법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방문합니다.
- 2) 화면 위쪽 메뉴에서 '위원회소개'를 클릭합니다.
- 3) 화면 왼쪽 메뉴에서 '개요'에 속한 '업무범위'를 눌러 내용을 확인합니다.



투표소에 가볼까요?



투표는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적인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투표방법에는 6월 8~9일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한 '사전투표'와 6월 13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역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가능한 '일반투표'가 있어요.

☑ 내 투표소 확인 ☑ 신분증 꼭 챙기고 ☑ 3장·4장 나눠서 두 번 투표

1인 7표 투표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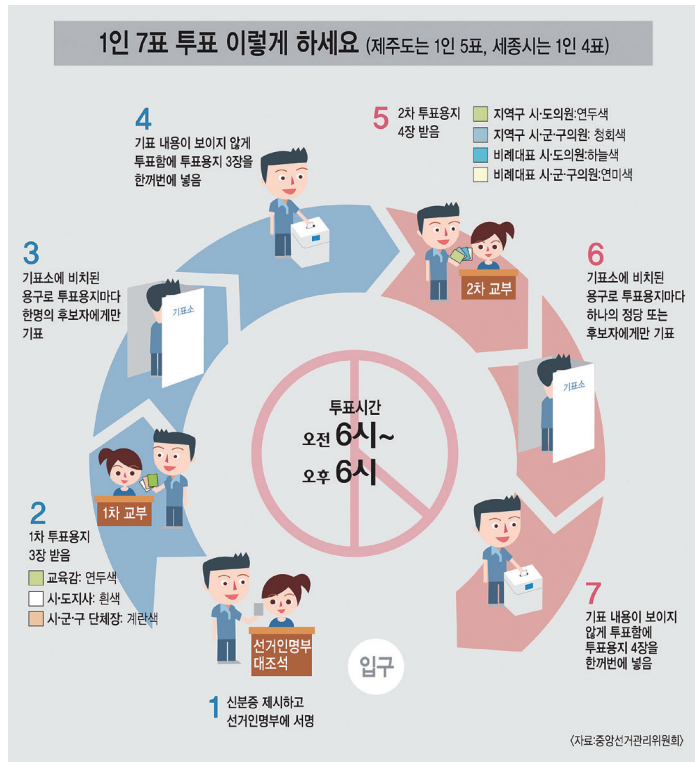
6월 4일 지방선거 당일에는 사전투표 때와 달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 에 발송된 투표안내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장에 들어서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이나 학생증 등이면 된다.

유권자 명부에 서명을 하면 1차로 3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시·도교육감(연두색), 시·도지사(백색), 시·군·구의 장(계란색)에 먼저 투표한다.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 용구로 자신이 원하는 후보 이름 옆 공란에 표기한 후 1차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2차에서는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시·도의원 지역구(연두색), 시·도의원 비례대표(하늘색), 시·군·구의원 지역구(청회색), 시·군·구의원 비례대표(연미색)에 투표한 후 마찬가지로 2차 투표함에 넣으면 이날 투표는 모두 끝이 난다. 다만 제주도는 1인 5표제, 세종시는 1인 4표제다.

특히 교육감 투표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호가 없다. 이에따라 다른 투표용지와 다르게 후보자 이름이 위에서 아래가 아닌 가로형으로 배치됐다. 기초선거구별로 후보자 이름 순서



배열도 달라진다. 지역구 기초의원을 뽑을 때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후보자들과 다르게 투표용지에 기호가 '1-가', '1-나' 등으로 표시돼 있다. 앞 숫자는 정당, 뒤는 후보자들로 같은 정당에서

두 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유권자는 이들 중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 표시할 경우 무효표가 된다.

송수연기자songys@seoul.co.kr

활동 날짜 년 월 일 요일

참고 신문 년 월 일 신문(일보) 면

참고사이트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는 어디일까요? 우리 집과 투표소 위치를 먼저 그린 다음, 학교, 주민센터 등 명칭을 적어보세요. 미리 투표하는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당일 투표하는 '일반투표소' 가운데 1곳만 그리면 됩니다.

투표장소 명칭 :



〈자료〉를 읽고 투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 1
- 2
- 3
- 4
- 5
- 6
- 7



투표소에 다녀왔나요?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 소감을 10~30자로 짧게 적어보세요. 만일 방문하지 않았다면 투표장에 가고 싶은 이유를 짧게 써보세요.



선거뉴스 2가지 뽑아볼까요?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다양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지방선거 뉴스 가운데 독특하거나 흥미로운 뉴스를 뽑아봅시다.

※ 아래는 예시한 것으로, 이밖에 다른 사례를 활용해도 됩니다.

- △이색 선거 유세 이야기. (예) 유세차량 꾸미기, 유세 현장, 후보자 복장 등
- △눈길 끄는 투표 이야기. (예) 사전투표, 특색 있는 투표장, 첫 투표하는 유권자 등
- △개표 관련한 흥미로운 일. (예) 아슬아슬한 당선, 최다 득표, 무투표 당선 등
- △후보를 본 경험. (예) 거리·유세장에서 직접 만났을 때, TV나 인터넷에서 봤을 때 등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신문을 읽고 활동해보세요.(참여 인원은 2명 이상)

가족 또는 친구	각자 뽑은 뉴스 1가지	이유

활동 날짜 년 월 일 요일

참고 신문 년 월 일 신문(일보) 면

참고사이트



위에서 각자 뽑은 뉴스 가운데 1~2개를 찾아 붙여보세요.(기사, 사진, 공익광고, 인터넷 뉴스도 가능)



우리 동네 당선자에게 바랍시다~



지방선거가 끝났나요? 선거에서 뽑힌 당선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 당선자들에게 기대하는 말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아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창에 짧게 적어보세요.

① 받는 사람 :

() 시·도지사

당선자 : _____

② 받는 사람 :

() 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 : _____

VISA

축하합니다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위 학생은 '2018 풀뿌리 민주주의와 선거 패스포트' 활동 주제를 수행했습니다.

담당교사(또는 부모님) 서명 _____

증명

한국신문협회는 '2018 풀뿌리 민주주의와 선거 패스포트'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권승호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사이트

 <p>경향신문</p> <p>http://www.khan.co.kr</p>	 <p>국민일보</p> <p>http://www.kmib.co.kr</p>	 <p>내일신문</p> <p>http://www.naeil.com</p>
 <p>동아일보</p> <p>http://www.donga.com</p>	 <p>매일경제</p> <p>http://www.mk.co.kr</p>	 <p>머니투데이</p> <p>http://www.mt.co.kr</p>
 <p>문화일보</p> <p>http://www.munhwa.com</p>	 <p>브릿지경제</p> <p>http://www.viva100.com</p>	 <p>서울경제</p> <p>http://www.sedaily.com</p>
 <p>서울신문</p> <p>http://www.seoul.co.kr</p>	 <p>세계일보</p> <p>http://www.segye.com</p>	 <p>스포츠서울</p> <p>http://www.sportsseoul.com</p>
 <p>스포츠조선</p> <p>http://sports.chosun.com</p>	 <p>아시아경제</p> <p>http://www.asiae.co.kr</p>	 <p>이데일리</p> <p>http://www.edaily.co.kr</p>
 <p>전자신문</p> <p>http://www.etnews.com</p>	 <p>ChosunMedia 조선일보</p> <p>http://www.chosun.com</p>	 <p>중앙일보</p> <p>http://joongang.joins.com</p>
 <p>한겨레</p> <p>http://www.hani.co.kr</p>	 <p>한국경제</p> <p>http://www.hankyung.com</p>	 <p>한국일보</p> <p>http://www.hankookilbo.com</p>
 <p>헤럴드경제</p> <p>http://biz.heraldcorp.com</p>	 <p>연합뉴스</p> <p>http://www.yonhapnews.co.kr</p>	 <p>강원도민일보</p> <p>http://www.kado.net</p>
 <p>江原日報</p> <p>http://www.kwnews.co.kr</p>	 <p>경기일보</p> <p>http://www.kyeonggi.com</p>	 <p>경남신문</p> <p>http://www.knnews.co.kr</p>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

 **경북도민일보**

<http://www.hidomin.com>

 **경북매일신문**

<http://www.kbmaeil.com>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光州日報**

<http://www.kwangju.co.kr>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

 **대구일보**

<http://www.idaegu.com>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

 **해일新聞**

<http://www.imaeil.com>

 **부산일보**

<http://www.busan.com>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

 **울산매일**

<http://www.iusm.co.kr>

 **全羅日報**

<http://www.jeollailbo.com>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

 **全北日報**

<http://www.jjan.kr>

제주新보

<http://www.jejunews.com>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발행일 | 2018년 4월 30일 초판 제1쇄 발행

지은이 | 최상희 경향신문 편집국 차장

심옥령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초·중등 교장

이유진 서울 영도초등학교 교사

발행인 | 이병규

편집인 | 허승호

펴낸곳 | 한국신문협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층

전화 | 733-2251~2

팩스 | 720-3291

홈페이지 | www.presskorea.or.kr

후원 | 